CHINESE TITLES

제목 : 纯粹经济学：王福重经济学十九讲

가제 : 순수경제학 : 왕푸중의 경제학 강의

저자 : 王福重 왕푸중

발행일: 2015년 04월 출간예정

분량 : 384

장르 : 경제

<내용 소개>

<순수경제학>은 경제학의 정확한 본질을 실용적이고도 알기 쉽게 담아낸 책이다.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누어 전반적인 경제학 이론의 기본 구조를 다루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19개의 강의형태와 1개의 부록을 합해 총 20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주제는 경제학의 기본지식으로 경제학기본개념, 제조업 이론, 기본방법과 특유의 사고 패턴을 다뤘다. 두번째 주제는 소비자 이론, 제조업 이론과 시장구조이론을 다뤘다. 이 책의 핵심이 되는 세번째 주제에서는 거시경제학적인 문제에 주력했다. 거시경제문제와 거시경제정책, 국제무역과 금융시장문제를 단기적, 장기적으로 함께 다뤘다.

이 책은 경제학을 '답답한 학문'으로 만들어 버리던 기존의 복잡한 공식과 지루한 사례들을 없애고 경제학의 심오한 원리와 내용을 알기쉬운 단어로 감칠맛 나게 풀어냈기 때문에 경제학의 실체를 독자들이 유쾌하면서도 빠르게 이해하게 해준다.

<세일즈 포인트>

1. 중국에서 제일 공신력있는 경제 프로그램<경제랑안>의 수석 게스트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의 저서이다.
2.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었으며,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작품인 <사람들은 모두 경제학을 좋아해> 작가의 최신작이다.
3. 고명한 학자의 눈에 비친 금융의 본질을 따라 배울 수 있다.
4. 단한권의 책만으로도 금융을 이해하고, 세계 또한 이해할 수 있다.
5. 간결하고 쉬운 문체지만 경제학의 심오한 본질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저자소개>

왕푸중

작가는 저명한 경제학자로 북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베이항대학교(베이징항공항천대학)의 무역학과의 주임교수를 역임하며 주로 거시경제학, 국제 경제, 중국경제개혁과 전환의 장기적 중점사안, 자본주의 시장, 부동산시장, 민영업체 경제 분야를 연구한 중국에서 제일 영향력있는 경제학자중 일인이다. 100여 편의 학술논문과 10여 편의 저서가 있다. 중국 거시경제 문제와 정책연구 분야로 정평이 난 권위있는 경제평론가로써, 중국 국영중앙방송국, 베이징방송국, 광동방송국, 제일경제채널, 천진방송국, 봉황케이블 방송과 중앙인민방송국<경제의 소리>등 경제채널의 특별평론가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경제채널로는 제일 공신력있는 프로그램인<경제랑안>에 자주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상해증권보>라는 신문에서도 특별 칼럼을 맡아 기고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와 대기업 및 금융기관으로 부터 초청받아 경제, 금융, 부동산 관련 강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중국의 몇 안되는 양심적이고 수준높은 경제학자로 칭송되고 있는 작가의 다른 저서로는 <모든 사람들은 경제학을 좋아해>,<중국인에게 알려주는 경제학>,<공평한 중국>등이 있으며 해외에서도 큰 호평을 받으며 베스트 셀러에 기록되기도 했다. <중국인에게 알려주는 경제학>의 경우 2010년 중국본토 최우수'상업도서작가상'을 수상했다.

<목차>

1장 모든 경제학
2장 경제학의 사고
3장 경제학의 가설
4장 공급과 수요
5장 소비자
6장 업체
7장 경쟁과 독점
8장 게임이론
9장 독점경쟁의 과점
10장 GDP
11장 총수요
12장 정부정책
13장 화폐와 은행
14장 화폐 정책
15장 실업
16장 인플레이션

17장 경제성장

18장 국제무역

19장 국제금융

부록: 경제학의 100가지 키워드

제목 : 如果我活着回来, 就接受现在的人生：28岁遇见墨脱
가제 : 살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금의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발행일: 2014년 10월 01일 (땅땅닷컴 참조)
분량 : 254
장르 : 자기계발

<내용소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명의 의미를 찾아 나설 용기가 있는가?

중국 최대의 도서리뷰 싸이트 '더우반 닷컴'에서

100만명의 팬을 확보한 작가의 일생에 단 한번 추천할만한 인생여정!

<땅땅닷컴 추천 내용>

"만약에 살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결혼도 해보고 취업도 해서 지금의 내 인생을 받아들여 살아볼테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한다면 여기까지만 자판을 두드리다 모든게 끝나겠지…"

공무원 생활을 하며 안정적인 인생을 유지하던 작가는 28년 생애를 통틀어 살아 있음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불현듯 이렇게 인생이 끝날것이라는 생각에 작가는 지금까지의 모든것을 버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머리가 이상해 보일 수 있는 결심을 한다. 그렇게 시장자치구(티베트)로 넘어가 히말라야 산행을 시작한 작가가 중국 최대의 도서리뷰 포털인 더우반 닷컴에 전 여행담을 올렸다. 여행담은 100만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큰 호응을 얻어 정식 종이책으로도 출간되게 되었다.

중국에서 소위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와 자아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 작가의 행보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도 충분한 감동과 선사하고 공감대 만들어 줄수있는 이야기이다.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자서 : 왜 묵탈현이여야 했는가
28세, 한남자의 공황
가지않으면 안된다? 아니, 안 갈수가 없는 것이다

1장 : 지금부터는 되돌아갈 수 없다
한 외국인의 고민- 라사(Lhasa)- 해발고도 3,658m, 그리움지수1
린즈현(林芝县)에 도착했니?연애는 했니?- 린즈, 해발고도 3,100m, 그리움지수4
환생을 위한 윤락가- 파이진, , 해발고도 3,900m, 그리움지수2
20분간의 절세적 청춘- 난쟈바와, 해발고도 7,782m, 그리움지수3
생활의 순환- 파이진, , 해발고도 3,900m, 그리움지수1

2장 : 도출라 패스에서(Dochu La Pass) 행패
위험한 차문- 미린현, 해발고도 3,700m, 그리움지수1
곤경에 빠지다- 송림, 해발고도 3,600m, 그리움지수1

절벽에서 실의에 빠지 사람- 두촐라패스, 해발고도 4,221m, 그리움지수4
두 남자의 스트립쇼- 도출라 산, 해발고도 4,500m, 그리움지수2
투명한 지붕- 라가시, 해발고도 3,250m, 그리움지수1

<저자소개>

샤오쥬페이따오 (본명: 주홍페이)

작가는 중국 최대의 도서리뷰포털 '더우반닷컴'의 정신적 아이돌이다. 해발 8,000M 높이의 산을 등반하며 이 글을 썼다.